

“보복 두려워 복면 벗지 않고 독일 기자에 사진 찍혀”

복면 쓴 5·18 시민군 임성택씨

“사진 속 오른손목을 보면 작은 혹이 미세하게 보일 겁니다. 그럼 내 오른손목을 한 번 보세요. 혹이 있나. 없나. 혹 보이시죠. 저 사진 속 주인공은 바로 저입니다.”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복면을 쓴 시민군 사진 속 주인공으로 확인된(광주일보 14일자 1면) 임성택(52·광주시 남구 백운동)씨는 14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나는) 당시 광주시민이자 시민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칼빈 소총을 든 채 군용 지프(Jeep) 좌석에

“사진 속 손목 혹 지금도 있다”

“시민 지키기 위해 총 들었는데 폭도·북한군 내몰려 억울·분통”

앉아 방석모를 쓰고 마스크를 두른 모습이 찍힌 사진을 가리킨 뒤 자신이 사진 속 주인공임을 차분히 증명했다.

그는 “왼손이 주먹을 쥐듯 약간 구부리고 있는데, 어릴적 다쳐 왼손 새끼 손가락을 잃은 뒤 생긴 버릇이다. 남들에게 (왼손 새끼손가락을) 보여주기

싫어 습관적으로 왼손을 감추게 됐다. 아직까지도 이 버릇이 남아 있다”며 사진 속 주인공이 자신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당시 외신기자에 의해 사진이 찍히는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5월 25일께 광주공원에서 전투복과 방석모 등을 지급받은 뒤 구모(51)씨·양모(53)씨와 함께 지프를 타고 가던 중 서구 농성동 한국전력 앞길에서 외신기자를 만났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서구 화정동 잣등 주변에 계엄군이 몰려 든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동태를 파악하러 가던 중이었다.

그는 “(한국전력 앞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을 본 뒤 지프를 멈춰 세웠는데, 독일인 기자가 서툰 한국어로 ‘사진 찍어도 되느냐’고 말해 허락했다”며 “(외신기자가)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했는데, 보복이 두려워 마스크를 벗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그는 북한군으로 내몰린 부분에 대해선 억울한 듯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나갔다.

그는 “20년 전 내 모습이 찍힌 사진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사진을) 보자마자 ‘나’라는 것을 확신했다”며 “최근 지만원씨 등이 내 사진을 보고 북한군이었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5·18 역사를 왜곡하는 지만원 등 일부 세력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또 “신군부가 무고한 시민을 총과 칼로 진압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시민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었던 시민을 폭도, 간첩으로 매도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



14일 오후 ‘복면 쓴 5·18 시민군’ 사진의 주인공 임성택씨가 광주시 남구 자택에서 광주일보를 보며 당시 상황을 전하고 있다.

“시민군들 쓴 복면 내가 만들었다”

5·18 당시 광주YWCA 이사 송희성씨

“제가 복면을 나눠준 사람들은 모두 선량한 시민들입니다”

1980년 5·18 민중항쟁 당시 방석모 외에 천으로 된 복면을 둘러쓰고 광주도심을 순찰했던 사람들이 시민군이라는 지역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송희성(여·77·사진) 당시 광주YWCA 이사는 계엄군들이 시민군들의 얼굴을 확인, 추후 응징한다는 보복설이 떠돌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하나둘씩 생겨 쓰게 복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5·18 당시 무덕관(옛 상무관)에서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도왔다. 당시 무덕관엔 계엄군의 총탄에 쓰러져간 시신들이 수십 구에 달했다.

당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짓밟혀져 있는 시신 등이 적지 않은데다, 심한 냄새 등으로 시신 수습이 쉽지 않았다고 한다.

송씨는 이때 광주시 남구 사동 성하맨션 자신의 집에 있던 ‘병원용 거즈’를 이어붙여 마스크(가로 20cm·세로 10cm)로 만들어 착용하면 시신 수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 아파트 부녀회원과 재봉틀을 이용, ‘거즈’를 마스크로 만들었다. 그는 당시 직접 만든 마스크 수도 100개라고 기억해냈다.

송씨는 이 마스크를 도청 행정부에 전달했고 행정부는 시신 수습을 맡은 시민들에게 하나씩 나눠줬다. 도청 행정부는 또 계엄군의 보복 소식에 두려움을 느끼는 시민군들에게도 마스크를 건넸다. 결국 냄새 제거용 마스크가 시민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치는 도구로 이용된 셈이다.

송씨는 “복면 쓴 시민군이 ‘북한군’이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만든 마스크 때문에 죄없는 시민들이 오해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다”며



송희성 오월민주여성회 회장이 14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 “14일 광주일보 보도 뒤 부담을 덜게 됐다. 시민군이던 임성택(52)씨가 마스크 때문에 겪었을 마음고생을 생각하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희성씨가 당시 성하맨션 부녀회원과 5·18 당시 마스크를 만드는데 사용한 재봉틀은 5·18 기록관에 기증, 전시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 정부가 억지 왜곡”

‘임 위한...’ 제창 거부에 작사가 백기완, 작곡가 김종률씨 반발

국가보훈처가 5·18 35주년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제창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정부의 반시대적 결정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을 중심으로 정부 입장을 비판하는 지적이 터져나오다가 하면, 보훈처가 기념곡 미지정 및 제창 거부 사유로 ‘제목, 가사 내용, 작사자 행적’ 등을 제시한 뒤 해당 작사·작곡가 등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 위한 행진곡은 작가 황석영씨가 백기완의 시 ‘뫼비나리’를 개작해 가사를 붙였고 김종률(56)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곡을 만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국가보훈처가 ‘논란이 야기된 노래 제목과 가사 내용’이라며 언급한 ‘임’, ‘새날’과 관련, “임은 5·18 민중항쟁 당시 사망한 윤상원과 박기순의 영혼결혼식을 위한 노래인 만큼 두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5·18 당시 희생자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던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사무처장은 또 “가사 중 ‘새날’은 군사독재와 폭압이 사라진 대한민국이 민주화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을 왜 정부가 나서 ‘색’을 입히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백기완 김종률

다. 그는 오히려 정부가 본래 의도를 왜곡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왜곡하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작곡 당시 현장에 있던 당사자가 제목, 가사 의미를 설명하는데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는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가사의 바탕이 된 ‘뫼비나리’를 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보훈처 발표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새날’의 의미를 “유신독재가 사라진 올바른 민주주의의 시대”라고 했다.

백 소장은 “작가가 쓴 시 구절 의미조차 왜곡하는데, 이는 문학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위한 행진곡’을 사상적인 문제를 내세워 제창을 거부하는 것은 의무·의처증 환자나 하는 짓”이라고도 했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현병철 “5·18은 인권신장 원동력” 5·18 묘지 참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장이 14일 광주시 북구 윤정동 국립 5·18 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윤상원·박현숙·전영진 묘역과 유영보안소 등을 찾은 등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현 위원장은 “5·18 민중항쟁은 우리나라의 인권신장의 초석이자 이를 완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됐다”며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고 5·18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가 인권도시인 만큼 남다른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5·18 기념식에서의 ‘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

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방명록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 더욱 노력해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현 위원장은 이후 윤정동 광주시장과 만나 인권기본조례 및 공무원 인권교육 등을 논의했으며, 15일에는 제12회 ‘한센인의 날’을 맞아 국립 소록도병원 등 인권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우르르~ 세계 젊은이들이 광주로 몰려온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올림픽!!!

2015광주하계U대회

7월

광주에서 함께 해요~

기간 2015. 7. 3. ~ 7. 14. (12일간)

장소 광주·전남·전북일원 경기장

규모 170개국 20,000여명

종목 21개 (정식 13 / 선택 8)

UNIVERSIAD KANGJU 2015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